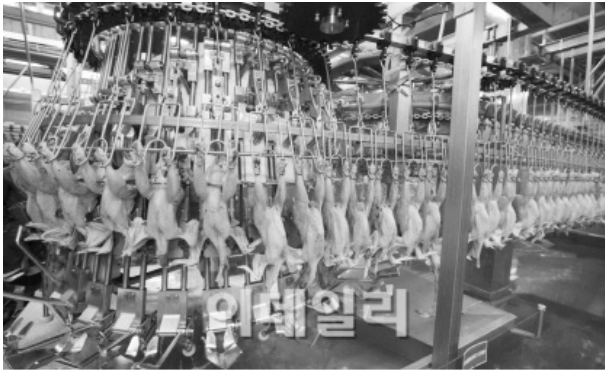


## 오리기업 ‘코리아더커드’ 계육사업 진출



코리아더커드가 새롭게 구축한 닭가공 라인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오리전문기업 코리아더커드가 계육사업 진출을 위한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코리아더커드는 지난 3월 27일 계육사업을 위해 재정비한 도계라인에서 본격적으로 닭을 도축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도축·포장 설비를 운영하는 ‘시도계’를 진행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날 첫 가동에 들어간 도계라

인은 전북 남원에 위치한 코리아더커드의 오리가공 라인을 닭가공 라인으로 탈바꿈하면서 설비구축과 확장공사에 약 100억원이 투자됐다. 신설된 도계라인은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럽형 설비를 도입했다. 유럽형 설비는 위생 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코리아더커드 남원공장 닭가공 라인의 생산규모는 시간 당 약 1만2000수, 1일 약 15만수다. 남원 공장은 국내 오리업계 최초로 무균설비, 공기정화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이다. 코리아더커드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계육사업을 전개, ‘다향 사계절 맛있는 닭’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다. 박은희 코리아더커드 기획실 상무는 “새로운 계육사업은 철저한 위생 시스템을 갖춘 남원 공장을 기반으로 닭의 부분육과 가공육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오리 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닭 사업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014. 03. 30]

## 다향오리, ‘기황후’ 팀에 훈제오리 밥차 선물



국내 오리업계 1위 브랜드인 다향오리는 MBC월 화특별기획 ‘기황후’의 출연진 및 제작진에 훈제오리 밥차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향오리는 지난 4월 10일 기황후 촬영장에 방문해 훈제오리, 오리 소시지 등 기황후 출연진 및 제작진 200여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과 더불어 시청률 30%를 지원하는 응원선물을 전달했다. 기황후의 메인 스폰서인 다향오리는 시청자의 뜨거운 호응 속, 50부작에서 1회 연장된 51부작 방영의 쾌거를 기념하고 장기간 촬영을 위해 힘써온 출연진과 제작진의 체력 보강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기황후 제작진은 “9개월의 장기 촬영기간 동안 고군분투한 출연진 및 제작진 모두가 다향오리의 밥차 덕분에 영양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든든하게 체력 보충을 할 수 있었다”며 “응원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보양식으로 체력을 충전한 만큼, 남은 촬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2014. 04. 11]

## 모란식품, 셀덕 쇼핑몰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모란식품의 오리고기 브랜드인 셀덕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다. 셀덕닷컴([www.selduck.com](http://www.selduck.com))은 지난 3월 리뉴얼 되어 새로 오픈했고, 리뉴얼을 기념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쇼핑몰에서 오리 훈제와 양념오리불고기, 오리훈제 삼겹살, 셀덕 수제소지를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